

# 더 많은 주택 판매자가 가격을 떨어뜨립니다.

최근 Redfin 보고서에 따르면 가격이 하락한 판매 주택의 비율은 8월에 5%를 넘어섰습니다. 이는 2019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일반적으로 비교적 평탄한 시기에 발생합니다.

Redfin에 따르면 주택 구매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시장은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주택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한 판매자는 입찰 없이 시장에서 1~2주를 보내고 그에 따라 호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.

“주택시장은 초봄에 비하면 덜 바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형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멍니다. 덜 불균형한 시장으로의 이동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.”라고 Redfin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Daryl Fairweather가 말했습니다. “개학 시즌이 시작되면서 주택 가격이 일반적으로 낮아지고 공급이

바람이 불고 집이 팔리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. 이 모든 일이 아주 천천히 일어날 뿐입니다. 나는 주택 시장이 조만간 완전히 전형적인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방향으로 추세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.”

8월 15일 종료된 4주간의 Redfin 데이터에 따르면 중간 주택 판매 가격은 전년 대비 17% 증가한 361,973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

새로 상장된 주택의 호가는 4월 중순 이후 최저 수준인 35만334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% 올랐다. 이는 6월 27일까지 4주간의 사상 최고치보다 2.2% 하락한 것이다.

신규 리스팅은 전년 대비 3% 증가했으며 활성 리스팅은 2020년보다 24% 감소하여 2020년 10월 이후 가장 적은 감소를 보였습니다.

평균 주택은 요구 가격보다 1.8% 높은 가격에 팔렸는데, 이는 7월 11일까지의 4주간 최고점 대비 0.5%포인트 하락한 것이며, 전년 동기 대비 2.7%포인트 상승한 것이다.

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절반은 시장에 나온 첫 2주 이내에 제안을 수락했는데 이는 1년 전의 44%보다 훨씬 높았고 36%는 1주일 이내에 제안을 수락했는데 이는 1년 전의 32%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.

판매된 주택은 6월 말과 7월의 사상 최저치인 15일에서 증가하고 연간 35일에서 감소한 중앙값 18일 동안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.

평균 주택은 요구 가격보다 1.8% 높은 가격에 팔렸는데, 이는 7월 11일까지의 4주간 최고점 대비 0.5%포인트 하락한 것이며, 전년 동기 대비 2.7%포인트 상승한 것이다.